

남편따라 직장 옮겨 온 첫 이주 공무원 ... 혁신도시에 등지 김두천·김언진 부부

“날마다 가족 얼굴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힘들게 주말부부로 살다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가족이 모여 살 수 있어 너무 좋아요.”

혁신도시로 이주해 온 공공기관 직원들의 공통된 걱정 중 하나는 가족이 모여 사는 문제다. 배우자가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나주 살이’ 대신, 주말부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나주시청으로 직장을 옮겨 온 첫 이주 공무원 김언진(여·36)씨의 고민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김두천(37)의 직장 전력거래소의 나주 이전에 따라 1년여 넘게 주말부부를 해야 했다.

남편은 지난 2014년 10월 직장인 전력거래연구소가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혼자 나주에서 살기 시작했다. 김씨는 갓 3살 된 딸 수민이가 눈에 밝혔지만 아내의 직장 탓에 주말부부생활을 선택했다.

남편은 주말이면 공주 수민이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KTX나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주말에 약속이라도 잡혀있으면 하루도 못 놀아주고 “아빠 가지마세요”하며 눈물을 뚝뚝 떨치는 수민이를 뒤로 한 채 가슴 아픈 발길을 돌리곤 했다.

김씨는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빨리 합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 그에게 나주로의 이사를 결심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수민이 동생을 임신한 것이다.

남편 김씨는 “주말생활을 해보니 주중에 잡히는 아이들에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아예 못 보는 것에 차이는 매우 크다”며 “그렇지 않아도 아내 혼자 수민이를 키우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이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 같은 결심에 수민이 엄마도 선뜻 동의하고 직장을 나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지난 2015년 10월 수민이 엄마는 그동안 정들었던 서대문구청에서 나주시 공무원으로 직장을 옮기고 주말부부 1년에 종지부를 찍었다.

남편을 따라 나주시 금남동주민센터로 직장을 옮긴 수민이 엄마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부녀의 눈물어린 이별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수민이 엄마는 주말부부로 1년 동안



빛가람 혁신도시에 등지를 틈 김두천(37·전력거래소·오른쪽)·김언진(36·나주시 금남동주민센터)씨 부부가 나주의 한 찻집에서 딸 수민(5)이를 안고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남편 전력거래소·부인 서대문구청 근무

주말에만 만나는 딸 눈에 밝혀

둘째아이 임신에 합치자 결심

지난해 부인도 나주시청으로 근무지 옮겨

넉넉한 인심에 조용하고 여유로운 생활

마음 놓고 출산할 병원 없어 걱정

살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수민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고 한다.

그녀는 “수민이가 엄마에게 더 집착하고 아빠는 가끔 왔다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점점 멀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며 “한참 아빠랑 목마나 말 타며 몸으로 놀아야 하는데 엄마랑 앉아서 놀기만 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수민이 엄마는 내려온 지 4개월 남짓 되었지만 벌써 나주 사람이 됐다.

그녀는 나주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수민이네가 나주로 이사 오기 전에 가족이 영산강 황포돛배와 영산포 흥어에 거리를 구경했다고 한다.

이후 수민이엄마가 나주금남동주민

센터에 근무하면서 돌아본 나주는 아름답고 자제였다. 눈 덮인 금성관과 목사내아, 그리고 한 쪽에 그림 같은 경원동에 눈 내리는 겨울은 혼자 보기가 아까웠다고 한다.

또 최근 수민이와 다녔던 도래 한옥마을과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수목원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녀는 “사실은 나주로 내려올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민이가 아팠을 때 직장 동료들이 가족처럼 도와주고 출산을 잘 한 후 나오라고 따뜻하게 격려했다”며 “서울인심은 깎쟁이 같은 면이 있는데 4개월 정도 살아보니 지방은 넉넉한 인심이 느껴져 하루라도 빨리 올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또 김씨 부부는 지방에서의 삶 중 대표적인 장점은 탁 트인 공간에서 조용하고 여유있는 생활과 로컬푸드를 선정했다.

김씨는 “서울에 마트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도 과연 원산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곳은 직접 재배한 것을 가져와서 판매해 유기농이나 원산지를 확인하며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부부에 나주 생활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당장 출산을 앞둔 수민이 엄마로서는 나주에 맘 놓고 출산할 병원이 없어 걱정이다.

또 나주에 아동병원이 최근 개원했지만 주말에는 문을 닫아 광주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녀는 “나주에는 발레나 문화센터 등이 모두 5세 이상만 가능해 5세 이하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나주에 대형마트가 없는 것도 불편한 것 중 하나이다.

김씨 부부는 “동료 중 상당수가 아직도 힘든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가족이 합쳐져 다정하게 시집도 보고 여유와 행복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기술연구개발

‘K-CT 단비’·‘K-CT 새싹’ 사업설명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자)은 콘텐츠산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술 연구개발(CT R&D) ‘K-CT 단비’, ‘K-CT 새싹’의 사업설명회를 17일 서울 문화창조벤처단지(16층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K-CT 단비’와 ‘K-CT 새싹’ 프로젝트는 콘텐츠 기업들이 문화기술(CT) 연구개발을 통해 자신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이며, 올해는 ‘K-CT 단비’ 55억 원, ‘K-CT 새싹’ 12억 원 등 최대 67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K-CT 단비’ 프로젝트는 글로벌 융·복합 시대를 맞아 글로벌 신(新) 한류를

선도할 수 있는 ‘융복합 전략분야’와 문화산업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문화산업 현장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K-CT 새싹’ 프로젝트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분야로, 창업 의지와 열정이 가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산업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다양한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전·SK텔레콤, 제주 국제 전기차 엑스포 참가

지능주행 솔루션 체험 등

차와 융합할 기술 선보여

한국전력은 SK텔레콤과 함께 18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자동차 엑스포에 참가해 전기차와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보인다.

한국전력과 SK텔레콤은 지난 1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엑스포 공동 참여를 추진해왔다.

SK텔레콤은 이번 엑스포에서 전기자동차의 지능주행 솔루션 체험, 증강현실(AR)을 통한 전기차 구조 소개, 태블릿 내비게이션, 커넥티드 카 해킹방지 칩 등 ICT 기술을 소개한다.

지능주행 솔루션 분야에서는 시물레이션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무인운전, 자동충전, 충전 중 차량 상태 모니터링, 티맵(T-Map)을 통한 전기충전소 위치 안내, 주행 중 충돌회피 등의 서비스를 4인승 차량 모형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5G 이동통신과 전기차를 결합하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의 원리와 제공 가능 서비스를 설명하고, 커넥티드 카의 해킹 방지를 위한 양자보안기술도 소개한다.

한편 국제 전자자동차 엑스포는 2014년 시작된 세계 유일의 전자자동차 박람회로 24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완성차·부품 업체 120여 개가 참가해 전기자동차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마트 TV 앱·서비스 개발 2억 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은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올해 스마트TV 앱·서비스 개발에 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TV와 IPTV, 케이블TV 등을 통해 서비스될 수 있는 게임이나 생활정보 등 단순 독립형 TV앱은 최대 2000만 원, 스마트기기 연동형이나 타산업 융합 TV앱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테스트베드, 플랫폼사 기술 멘토링,

개발 공간 등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공공서비스, 건강, 생활정보, 전자상거래 등 TV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장려에 제한이 없다.

지원 신청은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박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